

제 목	국 문	황산염환원균에 의한 비산재 침출수중의 중금속 제거			
	영 문	Removal of Heavy Metal from Fly Ash Leachate by Sulfate Reducing Bacteria			
저자 및 소속	국 문	김은숙 · 배일상 · 전은미 · 강미혜 · 정권 · 신재영 · 안승구*			
	영 문	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*서울시립대학교환경공학부 Eun Sook Kim · Il Sang Bae · Eun Mi Jeon · Mi Hye Kang · Kweon Jung · Jae Young Shin · Seoung Koo Ahn*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, *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, The University of Seoul			
분 야	폐기물관리 및 처리방법	발 표 자	김은숙	발표형식	포스트
진행상황	연구완료(○), 연구중( 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	
<p>1. 연구목적</p> <p>도시폐기물 소각재중 비산재의 매립에 따른 중금속의 용출특성을 모형매립조 실험을 통하여 조사하고, 폐기물매립지 침출수중 상당량 존재하는 황산염환원균을 이용한 회분식 실험을 행하여 비산재 침출수내의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황산염환원균 활성의 적정조건을 연구하고자 하였다.</p> <p>2. 연구방법</p> <p>비산재의 매립에 따른 중금속 용출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크기(W×L×H)는 33cm×33cm×111cm의 사각형 아크릴로 된 모형매립조 2개조에 비산재를 채운 후 중간복토 4cm, 상부에 12cm의 최종복토를 하였다. 비산재의 다짐밀도는 A, B조 모두 1g/cm<sup>3</sup>로 하였으며 물의 살수량은 0.85 l/주로 하였다. 매립조에 유입되는 물은 증류수(A조)와 Acetic acid를 이용, pH5.6으로 조정한 것(B조)을 사용하여 1주일 간격으로 살수하였다.</p> <p>중금속 제거 실험은 1000ml 용량의 반응조에 비산재 침출수의 초기농도를 고려하여 부족한 영양원을 넣고 N<sub>2</sub> gas로 purging 시킨 후, 배양한 황산염환원균(1.1×10<sup>8</sup>MPN/ml)을 10%첨가하여 상단을 실리콘 마개로 밀봉, 혐기성 상태를 유지시켰으며 120rpm, 35℃에서 ORP(Oxidation- Reduction Potential)의 변화, 전자공여체의 종류·온도·염소이온의 변화에 따른 sulfate의 농도 변화를 고찰하였다. 비산재 침출수의 중금속 제거효율은 모형매립조 침출수의 초기 중금속농도가 높은 Pb, Cd, Zn을 실험대상으로 하였다.</p>					

### 3. 연구결과 및 고찰

1. 비산재 침출수는 매립 후 13주째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, 비산재 침출수내의 Pb, Cd, Zn 모두 초기에 고농도로 유출되어 1년동안 총 함유량의 5~10%정도의 유출률을 보였으며 90%이상이 매립조내에 남아있는 것을 감안할 때 매립조내의 환경변화 등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좀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.
2. 고농도의 염소이온과 황산염을 함유한 비산재 침출수에서 해안매립지 침출수 중의 호염성 황산염환원균은 전자공여체로서 lactate, 온도 35℃, 염소이온 농도는 20,000 mg/L에서 가장 높은 황산염환원율을 나타냈다.
3. 수도권 해안매립지 침출수의 배양한 호염성 황산염환원균을 이용한 비산재 침출수중의 중금속 제거 실험 결과 반응 5일내에 Cd, Pb, Zn이 각각 100%, 99.3%, 99.7%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다.